

# 경기장 시설부터 손님맞이까지 ‘착착’

## 광주세계수영대회 D-50 분야별 준비상황

오는 7월12일 개막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야별 준비가 한창이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지난달부터 분야별 준비사항을 매일 점검하는 CPX(지휘소연습)체제로 전환하고, 일일 상황보고와 함께 선수촌과 전 경기장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현장 중심 대회준비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장 시설·선수촌 마무리 공사 한창=경기장 시설은 경영, 다이빙, 수구가 열리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구역과 아티스틱 수영이 열리는 영주종합체육관 구역, 하이다이빙이 열리는 조선대 구역, 오픈워터 수영이 열리는 여수엑스포해양공원 구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뉘져 있다.

중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은 관람석을 기존 3천393석에서 1만648석으로 늘리고 각종 운영시설도 두 배 이상 확충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구경기장 열리는 남부대 축구장은 임시수조 2개와 4천340석의 관람석을 설치한다. 남부대 권역 공정률은 92.9%로 이달말 공사가 마무리된다.

장운영계획을 수립해 각 경기장에서 최상의 경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직위는 지난해 10월 경기 전문가를 총목담당관으로 위촉해 조직위 관계자와 함께 경기시설 및 경기진행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종목담당관이 상주해 경기운영 전반을 조율하고 있다. 시와 조직위는 경기운영과 입장관리, 수송, 의료 등 분야별 지원계획이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경찰,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서포터즈 발대 등 자원봉사 순조=자원봉사자 모집과 시민서포터즈 운영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조직위는 지난 2일 외국어 통역을 비롯해 의전, 시상, 운전 등 분야의 자원봉사자 3천126명을 최종 선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달부터 직무교육과 함께 희망 직종과 근무 장소에 따라 각 경기장, 선수촌, 공항 등 활동 분야에 배치되고 오는 27일 공식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시민서포터즈도 지난 21일 발대식을

## 조직위·국제수영연맹·대한수영연맹 유기적 협조체계 시민서포터즈 본격 활동...문화·관광 프로그램 마련도

영주종합체육관은 임시수조 2개를 설치하고 관람석을 4천332석으로 늘리며 운영실 개보수와 체육관 천장보강 및 지붕판넬 설치 공사를 한다. 이달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공정률은 90.4%이다.

하이다이빙 경기장인 조선대 축구장은 하이다이빙 타워와 임시수조 1개, 관람석 3천47석을 마련 중이다. 공정률은 94.1%이고 현재 임시 기능실 설치 작업을 중이다.

오픈워터 수영 경기장은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에 2천95석 규모의 관람석과 폰툰(출발대), 코스 안내표지(부이) 등을 설치한다. 현재 공정률 50%로 6월10일 준공예정이다.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선수촌은 지난 1일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시설을 인수 받아 부대시설 설치를 진행 중이다.

◇종목별 대회운영본부 구성·FINA 등 협조체계 구축=조직위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국제수영연맹(FINA), 대한수영연맹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6개 종목별로 대회운영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경기연출, 시상, 도핑관리 등 현

영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선수단과 방문객 환영·환송, 지역 홍보와 명소안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한달만에 1만2천명이 응모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외 손님맞이 문화행사·관광상품 개발 분주=시는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거리공연, 마임, 마술쇼, 체험프로그램 등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여름시즌 행사를 대회기간에 맞춰 확대·연장하고, 대인예술야시장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술품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의 거리 문화체험 행사’가 집중 개최된다.

광주시티투어 버스는 6개 노선이 매주 토요일 확대 운영된다. 거리연극과 도보중심의 ‘광주100년 시간 투어’와 차내 영상과 음악중심의 ‘5·18광주 오월 투어’ 등 테마형 시티버스 2개 노선이 운영되고, 무등산권, 전통문화권, 문화유적지권 등 순환형 시티버스 3개 노선을 비롯해 외국인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박물관, 미술관 등을 경유하는 특별버스 1개 노선을 운영한다.

경기 후 선수들과 동반인들이 즐길 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D-50일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조선대학교에 건설 중인 하이다이빙 경기장을 찾은 세계수영연맹 하이다이빙 기술위원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시설 공사 현황

종목	장소	내용	공정률
경영 다이빙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	-관람석(3,290석·11,000석) 및 운영실 확충(3,886·8,797㎡), 미디어시설 설치 등	93%
아티스틱 수영	영주종합체육관	-임시수조 2개 설치(경기장 30·20·3m, 월업풀 20·15·3m), 운영실 및 관람석 개보수	90%
수구	남부대 종합운동장	-임시수조 2개 설치(경기장 35·25·2m, 월업풀 50·25·2m), 관람석 4,500여석 설치	93%
오픈워터 수영	여수엑스포 해상공원	-2.5km 코스 로프, 폰툰(출발대) 설치 -관람석 2,000석, 운영실 2,500㎡	50%
하이다이빙	조선대 축구장	-하이다이빙 타워(27m) 1동, 임시수조 1개 설치 (직경원형 15m, 깊이 6m), 관람석 3,000여석 설치	94%
선수촌	송정주공아파트	-15·25개동 1,660세대(최대 6,000여명 수용)	준공

있는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 중이며, 해외 대륙별 관심사에 맞는 패키지과 지역 행사나 전시행사, 문화예술, 맛집,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패키지, 동호회, 가족 단위별 체험형 관광상품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 선수촌, 남부대, 영주종합체육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대회기간 동안 매일 전통음악공연, 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전시·문화체험 행사가 열린다. /최연범 기자

##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기원 ‘수리달이 캐릭터 수영대회’ 내일 개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수리달이 캐릭터 수영대회가 24일 오후 2시 광주천에서 개최된다.

수영대회 개막 50일을 앞두고 열리는 캐릭터 수영대회는 공식 마스코트인 수리과 달이 튜브 인형에 대회 성공을 바라는 각계 인사와 지역민의 격려와 응원 문구를 적어 광주천에 띄워 레이스를 펼치는 이벤트다.

이날 대회에는 광주시를 비롯한 대회 조직위원회, 광주 시내 유치원, 초등학교, 시민 등 1천여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합평 나비축제 등 전남지역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오는 7월12일 개막하는 세계수영대회를 응원하는 수리달이 인형도 이날 광주천을 힘차게 내려가며 수영대회 홍보에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광주천 광주대교 밑에서 양동상가 방향 200m 구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뛰어난 재치와 입담으로 지역에서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신조한씨의 중계로 박진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이지

## 건설 5단체, 세계수영대회 1억원 기부

광주시는 22일 시청 3층 집결실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시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 겸임), 이권수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지회장, 전병국 건설기술교육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기부금을 전달한 단체는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공제조합 등 5개 단체로,

기부금액은 총 1억원이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건설경기가 부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유 회장과 이 광주시지회장은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유발효과와 생산유발효과가 크다”며 “광주형 일자리, 지하철 2호선공사 등이 순조롭게 추진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건설경기가 부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범 기자

## “광주·전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라우드펀딩 적극 활용해야”

### 광주전남연구원, 청년창업·소상공 등 자금조달 역할 제안

광주·전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인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활용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광주전남연구원 에 따르면 박용희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투자형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주제의 ‘광전리더스 Info’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청년·여성 창업, 전통시장·지역상권 활성화, 도시재생·공동체 복원 등에 크라우드펀딩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한 풀

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실제로 크라우드펀딩이 국내에서는 청년창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중소기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처로 활용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공간 개선, 소외계층 지원 등 공공사업 추진에 활용되고 있다.

박 실장은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활용해 광주·전남 청년·여성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시장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복원, 시민발전소 등 지역특화자원 연계 비즈니스화 등과 같이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사업에 크라우드펀딩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

소비자가 선택한 2019년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 '메타세쿼이아길'